

진시스템,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신속분자진단 플랫폼 강자'로 도약!

- ▶ 신속성 & 현장진단 & 정밀진단 두루 갖춘 초고속분자진단 플랫폼 완성
- ▶ 초고속·정밀 분자진단 기술로 체외진단 및 반려동물, 식품안전 시장 넓혀 지속성장 목표

<2020-12-23> 분자진단 검사시간을 2시간에서 30분내로 크게 단축시켜 초고속 분자진단에 성공한 진시스템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신속분자진단 전문기업 진시스템(대표 서유진)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장 주관은 삼성증권이 맡았고, 코스닥 상장은 2021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진시스템은 2010년 창사이래 신속분자진단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독자기술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술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진단플랫폼의 사업화로 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본격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장의 비결은 타 체외진단업체와 달리 진단 시약이 내장된 바이오칩 기반의 진단키트와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는 진단장비로 구성된 혁신적인 신속분자진단 플랫폼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진시스템의 혁신적인 분자진단 플랫폼 기술은 ▶면역진단 기술이 갖는 신속성 ▶현장진단 용이성 ▶다중진단 구현으로 기존 NGS진단 기술이 갖는 정밀진단 가능성까지 두루 갖춰 강력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결과 2개 우수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실제로 진시스템의 신속분자진단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존 2시간이 소요되는 검사시간을 30분내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감염병의 신속 확진 검사 및 다양한 현장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 진단장비의 소형화와 경량화로 휴대형 자가진단 기기의 상용화를 이끌며, 단일 검체에서 20개 이상의 진단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다중진단키트 개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진시스템 서유진 대표이사는 “우리의 독특한 신속분자진단 플랫폼 기술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검사 솔루션이 필요한 체외진단 시장은 물론 반려동물 진단, 식품안전 및 원료물질 검사 분야 등으로 확장하겠다” 며 “향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생산 시설 확충으로 신속분자진단 플랫폼 다각화를 이끌며 국내외 진단 콘텐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을 견인하겠다” 고 포부를 전했다.

☐ 자료문의 : 진시스템 유호성 이사 (042-863-8551)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